



〈박지성〉

황제는 누구?

■ 남아공 월드컵 30일 앞으로

메시·카카·루니·호날두 등 골잡이들 호시탐탐
 허정무호 16강 이끌 태극전사 박지성 활약 기대

'세계의 축구 전쟁'인 남아공 월드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출전국들은 최종 엔트리 23명 선발에 신중을 기하며 최상의 전력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구촌 축구팬들의 최대의 관심은 우승국의 향방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승컵의 일등공신이 누구일지에도 쏠려있다. 이번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최고의 기량을 뽐낼 '0순위 후보'는 한국이 6월17일(한국시간) B조 2차전에서 맞붙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22·FC 바르셀로나)다. 2008~2009 시즌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로 뽑힌 메시는 '마라도나의 재림'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현란한 드리블과 폭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한 경기 조율 능력을 갖추고 있다. 감각적이고 위력적인 왼발 슈팅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성장 호르몬 결핍 장애로 169cm의 작은 체구지만 20대 초반의 나이에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 선수로 우뚝 섰다. 메시는 2008~2009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프리메라리가·국왕컵 우승 등 스페인 축구 사상 최초의 '트리플' 달성에 앞장서기도 했다. 박지성의 팀 동료로 한국에 잘 알려진 잉글랜드 대표팀의 웨인 루니(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이번 대회에서 설욕을 바르고 있다. 2006년 대회 때는 개막 두 달 전에 오른발 부상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몸 관리만 잘한다면 잉글랜드를 44년 만에 정상으로 이끌 선수로 꼽힌다. 루니는 남아공 월드컵 유럽예선에서 9골을 넣어 팀 최다골을 기록하는 등 득점 감각이 절정인 상태고 특히 공격 뿐 아니라 수비 가담에도 적극적이어서 90분 내내 쉬지 않고 달린다. 월드컵 최다인 5회 우승에 빛나는 브라질 '삼바 축구'의 선두 주자는 중원 사령관인 카카(28·레알 마드리드)다. 카카는 2007년 발롱도르와 월드컵까지 유럽의 선수상을 휩쓴 데 이어 UEFA 클럽 선

수상·국제축구선수협회(FIFAPro) 올해의 선수상과 2006~2007 UEFA 챔피언스리그 득점상·FIFA 올해의 선수를 석권했다. '하얀 펠레'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와 더불어 뛰어난 중거리슈팅과 패싱 능력·특정력을 모두 가졌다. '검은 대륙'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선수는 코트디부아르의 디디에 드로그바(32·첼시)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첼시의 간판 공격수인 드로그바는 188cm, 84kg의 탄탄한 체격을 바탕으로 제공권 장악 능력이 뛰어나고 힘에서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을 듣는다. 2006~2007시즌 드로그바는 무려 33골을 터뜨리는 화려한 공격력을 뽐냈고 이번 시즌에도 프리미어리그 26호골로 루니와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면 득점왕 탈환 가능성이 크다. 뛰어난 기량과 함께 빠른 외모도 주목받는 포르투갈 대표팀 간판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5·레알 마드리드)도 이번 월드컵을 빛낼 스타다. 2007~2008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



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더블 우승(UEFA 챔피언스리그·정규리그 등 2관왕)을 이끌고 이번 시즌 직전에 천문학적 이적료를 기록하며 '호화군단'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 합류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아닌 측면 공격수지만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와 현란한 드리블, 강한 오른발 슈팅으로 높은 득점력을 자랑한다. 상대 골키퍼가 케적을 놓치지 않으면 '무회전 프리킥'은 호날두의 전매특허다. 한국의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은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발에 달렸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박지성은 허정무 감독이 구사하는 전술의 핵으로 한국이 속한 B조 상대인 아르헨티나와 나이지

리아, 그리스의 골망을 흔들어줄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한다. 미드필더 박지성은 다섯 시즌째 맨유에서 뛰면서 프리미어리그는 물론 UEFA 챔피언스리그·FIFA 클럽월드컵에서 우승을 경험했고, 소속팀과 대표팀을 오가며 농익은 플레이를 보여줬다. 2008년 10월부터 대표팀 주장을 맡아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대표팀을 이끌었다. 2009~2010 시즌 초반 무릎 부상 후유증 등의 이유로 주전 경쟁에서도 약간 밀렸으나 월드컵이 다가오면서 다시 골을 터뜨리며 감각을 되찾고 있다. 세 번째이자 자신의 축구 인생에 마지막이 될지 모를 남아공 월드컵에서 박지성이 어떤 활약을 보일지 기대된다. /연합뉴스



호랑이 '뒷문 단속' 고민되네

왼쪽에 도전하는 KIA 타이거즈 마운드에 부족한 두 가지.

KIA 타이거즈가 새 용병 로만 콜론의 가세로 마침내 시즌 전 구상해두었던 6선발 로테이션을 완성하게 됐다. KIA는 안정된 선발진을 앞세워 상위권 진입에 도전하게 됐지만 좌완 불펜진과 마무리 고민에 빠졌다.

좌완 불펜 육성엔 몇 년간 KIA가 풀지 못한 어려운 숙제다.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우승을 일구었던 지난해에도 KIA는 확고한 좌완 계투진 하나 내세우지 못했다.

올 시즌에도 KIA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전지훈련에서 신인 심동섭·임기준 등 왼손 투수들에게 공을 들였지만 그 성과는 불확실하다. 기대했던 심동섭은 허리 통증으로 아직 1군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8일 1군에 불려 올랐던 임기준은 공 한 번 던져보지 못하고 콜론과 자

민고 말길 좌완 불펜·마무리 부재... 상위권 진입 암초

신인 심동섭·임기준 공들였지만 역할 못해 보강 시급

리를 바꿨다.

시즌 초반에는 정용운이 좌투수 구색을 맞췄으나 부족한 경험과 스피드 탓에 제 몫을 못해줬다.

고민에 빠진 KIA의 좌완 숙제를 풀어줄 투수로 박경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박경태는 지난 시즌 조범현 감독으로부터 끊임없이 테스트를 받았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무너지곤 했다.

'배짱투'가 아쉬웠던 박경태가 9일 LG와의 경기에서 콜론에 이어 4회부터 마운드에 등판해 2와 3분의 2이닝 동안 1피안타 무실점의

깔끔한 투구를 선보였다. 팀이 역전패를 당하며 승리를 쟁기지는 못했지만 최고 145km의 직구와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내세워 인상적인 피칭을 보여줬다. 희망을 보여준 박경태가 KIA의 오랜 숙제의 키를 쥐고 있다.

회 빠진 마무리도 '5월 대반격'의 변수가 되고 있다.

선발진의 이탈과 중간 계투진의 난조 속에 4월 나홀로 분전했던 유동훈의 최근 페이스가 좋지 않다. 9일 LG와의 잠실 경기에서도 곧바로 마무리 유동훈이 출격하지 못했다. 8회 2사에서 투입된 박경철이 9회 세 타

자 연속 안타를 허용한 뒤에야 유동훈이 마운드에 올랐지만 조인성에게 끝내기 안타를 허용하면서 6연승이 좌절됐다.

하지만 유동훈을 대체할 마땅한 마무리가 없다는 것도 고민이다. 8일 윤석민이 깜짝 마무리로 나서기는 했지만 검증된 손영민·곽정철이 기복을 보이고 있고, 얇은 불펜층에서 필승조로서의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다.

확실한 좌투수와 마무리, 부족한 두 가지 요인 탓에 KIA는 최근 일요일 두 경기에서 끝내기 패배를 당했다. 주중 빠듯한 마운드 운영이 이뤄지면서 한 주의 마지막 경기에서 뒷심 발휘를 못하고 있는 셈이다.

6선발 체제로 한숨 돌리게 된 KIA가 좌투수와 마무리 고민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연아-빅뱅 월드컵 응원가 '승리의 함성' 공개

현대자동차는 '피겨퀸' 김연아와 아이돌 그룹 빅뱅, 록그룹 트랜스픽션이 함께 부른 남아공 월드컵 응원가 '승리의 함성(The Shouts of Reds part2)'을 11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는 벨론%도시락 등 15개의 음원사이트와 현대차 남아공 월드컵 마이크로 사이트(worldcup.hyundai.com)에서 이뤄진다.

이 곡은 '붉은악마' 응원단과 KT가 공동 제작한 앨범 중 트랜스픽션이 부른 'The Shouts of Reds'를 빅뱅 멤버들의 역동적인 랩과 김연아 선수의 피쳐링, 트랜스픽션의 사우팅(합성)으로 리메이크한 것이다.

현대차는 또 공식 응원 슬로건이 '승리의 함성, 하나된 한국!'('The Shouts of Reds, United Korea')을 토대로 사우팅을 모티브로 한 5개 시리즈의 동영상을 제작,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연합뉴스



13일 첫 선을 보이는 '홍플러스 TV광고 캠페인'에서 김연아 선수가 '국민 응원단장'으로 변신해 국민들과 홍플러스 매장에서 축구를 즐기며 대한민국의 승리를 응원한다.

무등야구장서 백남준을 만나다

30일까지 KIA 홈 경기중 미디어아트 작품 선보여

'광속구 시속 2010'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축제 '디지털페스타(DIGIFESTA)'가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KIA 타이거즈의 홈경기 중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미공개작을 선보인다.

작품은 경기 시작 전과 휴식시간 중 대형 전광판을 통해 볼 수 있으며 백남준 외 7명의 미디어아트 작가들도 참여한다. 주최측은 당

일 경기장에서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디지털페스타 입장권 2매씩을 증정한다. '광속구 시속 2010'이라는 주제는 '광속(光速)'이라는 빛의 속도를 '시간'이 아니라 '보는 속도'로 해석하는 것. '시속(視速)'으로 변하여 기술문명의 발전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바라보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디지털페스타 관계자는 11일 "전시 주제인 '광속구'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표현하는 것으로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야구공과도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어 무등야구장 야구장에서 전시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개막한 '디지털페스타'에는 국내외 작가 31명이 참여해 경계와 통념을 허문 미디어아트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11일 오후 KIA 타이거즈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가 열리는 광주 무등야구장 야구장 전광판에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프로야구 1억번째 관중에 평생 입장권

KBO 풍성한 이벤트 마련

1982년 막을 올린 프로야구가 누적 유료 관중 1억명 돌파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10년 제5차 이사회를 열고 통산 1억번째 입장 관중에 전 구장 평생 입장권을 선물하고 11월 광주 아시안게임에 초청하는 등의 사은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사회는 9999만9999번째 입장 관중

과 1억번째 관중에게도 1억번째로 입장한 관중과 같은 경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즌 166만1996명을 동원한 프로야구는 지난 9일까지 통산 9천914만4489명을 모았다. 85만명만 더 추가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대망의 1억명을 돌파할 수 있다.

KBO는 1억번째 관중을 찾고자 20만명을 남겼을 때부터 바코드가 입력된 용지를 추가로 발급할 예정이다. 각 구장 출입구에 설치한 용지 스캐너를 통해 실시간으로 입장 관중 수를 파악하게 된다. /연합뉴스